푸틴, 반란사태 후 첫 발언 "협박은 실패할 운명"

이틀 만에 연설…"우크라와 반역자들, 동족상잔 원했다"
"바그너 병사들, 국방부 계약 또는 벨라루스행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반란 사태와 관련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며, 자신은 처음부터 유혈사태를 방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사전 녹화된 방송 인터뷰나 화상 연설을 한 적이 있으나 반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TV 연설을 통해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며 "무장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들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멈춰서 유혈사태로 향하는 선을 넘지 않은 바그너 그룹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사태 처음부터 대규모 유혈사태를 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말로 바그너 반란군이 별다른 저항 없이 모스크바 200㎞ 이내까지 신속히 진군할 수 있었던 데 대해 해명했다.

다만, 그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이 사회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고 러시아에 얼마나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를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벨라루스로 가고자 하는 바그너 그룹 멤버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집에 가도 된다.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와 그들의 서방 후원자, 그리고 모든 국가 반역자 등 러시아의 적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동족상잔이었다. 그들은 러시아 군인들이 서로를 죽이길 원했다"고 비난했다. 반란을 이끈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및 서방처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다"고 치하하고 전사자들에 대해선 "숨진 영웅들의 용기와 자기 희생이 끔찍한 결과로부터 러시아를 구했다"고 평가했다.

고위 안보관리들과 회의하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고위 안보관리들과 회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극적으로 중재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데 대한 그의 기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설 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및 러시아 보안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에게 반란 관련 대처에 감사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이는 프리고진이 문책을 요구한 쇼이구 장관은 물론 반란 과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된 보안기관 등에 대한 신임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번 사태 관련 러시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 러시아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연합뉴스

사우디 메카 대사원 밖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낮잠 자는 성지순례객들.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 방역 규제 없이 시작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인 메카 성지순례(하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방역 규제 없이 치러진다.

성지순례부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성지순례에 160개나라에서 온 200만명의 무슬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사우디 당국은 성지순례객을 2020년엔 사우디에 거주하는 1천명, 2021년엔 6만명으로 제한했었다. 작년에는 외국인의 성지순례를 허용했고, 참석 인원을 100만명까지 완화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250만명이 넘는 성지순례객이 메카와 메디나로 모였다.

메카 성지순례는 무슬림이 행해야 할 성스러운 5가지 '기둥'(의무) 중 가장 중요하다. 무슬림은 건강과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평생 한 번은 하지에 참가해야 한다.

대부분 무슬림은 하지를 '평생소원'으로 삼고, 하지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을 오랜 기간 모은다. 올해 성지순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6천달러(약 79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연합뉴스

"日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점 최종 판단할 것"

경제산업성 간부 설명…"규제위 검사·IAEA 보고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구체적인 해양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산업성 한 간부가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산성 간부는 방류 설비 공사 완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 종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 등이 모두 이뤄진 단계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여름에 들어선 이후에도 명확한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날 해저터널을 파는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하고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면서 방류 설비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도쿄전력이 설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 시작한 시운전을 이날 끝내면 설비 공사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는 오는 28일 시작되지만, 검사 종료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은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검사가 끝나는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IAEA 최종 보고서는 이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공개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내달 초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규제위원회 검사와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적절한 방류 시점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쿠시마, 홋카이도, 미야가현 등 현지 어민들과 유통업협의회, 일본 시민단체, 주변국, 태평양 섬나라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2천년 된 콜로세움에 이름 새긴 관광객 '공분'

한 커플 관광객이 이탈리아 로마의 2천년 된 유적 콜로세움에 이름을 새기는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며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이 영상에서 배낭을 멘 한 남성은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콜로세움 한쪽 벽에 무언가를 새기기 시작한다.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 남성은 얼굴을 돌리고는 여유있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영상을 촬영한 다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가 해당 남성을 향해 "진짜로? 이 바보같은 자식아"라며 영어로 욕설을 내뱉는 목소리도 담겼다.

이 남성이 콜로세움에 새긴 글자는 'Ivan + Hayley 23'(Ivan + 헤일리 23)으로 확인됐다. 커플의 이름과 방문 시기인 올해 2023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붙잡히면 1만5천유로(약 2천137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無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